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서창욱/편집인 : 나은우/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4-4146/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의 단체회원은 2013년 2월 현재 214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69, 의과대학 학술지 11, 기타 분야 학술지 34)이며, 개인회원은 41 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감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 문화사), (주)신원데이터넷,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콰엔파트너스, 진기획, 최신의학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XMLink Co., Ltd., InfoLumi, Google

Inc., NHN(주),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XMLARCHIVE, Editage 총 1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개최



본 협회에서는 2012년 12월 6일(금)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6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오전 세션은 '학술지 향상을 위한 편집자의 역할', 오후 세션은 '학술지 정보관리 및 평가'라는 주제 아래 총 10개 강의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의편집 회원 148명이 참석하여 정보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 중 설문에 참여한 46명은 이번 아카데미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학술지별로 발전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교육 수준의 편차가 커서 실무자 수준별 강의 구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세부평가 항목과 평점(5점 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이해를 돕고, 최근 정보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대한 적합성 : 4.5
- 과정 이해에 도움 되는 교재 : 4.2
- 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실제 편집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정도 : 4.0
- 재미있는 강의 구성 : 5.0
- 새로운 주제나 집중주제를 다루는 과정이 있을 경우 재참석 의사여부 : 4.3



<European Science Editing>에 의편집 소개

유럽지역 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에서 발행하는 <European Science Editing> 38권 4호(2012년 11월호)에 의편집을 소개하는 э세이가 실렸습니다(서창욱 회장, 홍성태 부회장, 오세정 기획평가위원장 공저). 이 글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학학술지의 성과와 개선할 점을 소개하고, KoreaMed, KoreaMed Synapse, KoMCI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한국의학학술지의 논문들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읽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의편집의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원문은 소식지와 함께 배포한 간지에서 보시거나, EASE 홈페이지(<http://www.ease.org.uk>)에 접속 후 Publications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안내

일 시 : 2013년 3월 28일(목) 오후 2시 정기총회, 오후 3시 심포지엄
장 소 :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

<정기총회>

14:00-14:40 정기총회

<심포지엄>

- 주제 :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 15:00-15:30 학술지에서 편집인의 역할(Role of Editor in Scholarly Journal) 홍성태(의편협 부회장)
 - 15:30-16:00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SCIE) 잡지의 Final Editing 경험 박명희(서울의대 검사학교실)
 - 16:00-16:20 최근 약진하는 KAMJE 학술지(1) Cancer Research & Treatment 김일한(대한암학회 편집위원장)
 - 16:20-16:40 최근 약진하는 KAMJE 학술지(2)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김나영(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편집위원장, 의편협 기획평가위원)
 - 16:40-16:50 휴식
 - 16:50-17:40 CrossMark initiatives Carol Anne Meyer(CrossRef)
 - 17:40-18:00 PubReader, CrossMark 권오훈(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의편협 홈페이지 검색 기능 신설

의편협 홈페이지(<http://kamje.or.kr>)에 있는 다양하고 중요한, 그리고 방대한 자료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 상단 'Search this site' 아래 있는 검색창(Google Custom Search라고 쓰여 있는 곳)에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어휘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르면(그림 1) 의편협 홈페이지에 있는 웹문서 중 그 검색어를 포함한 모든 문서에 대한 연결 정보가 나열됩니다(그림 2).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림 1)



(그림 2)



KoreaMed Synapse 레코드 4만 건 돌파

본 협의회 정보관리위원회 주도로 2006년 7월부터 준비하여 2007년 11월에 KoreaMed Synapse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2013년 2월 6일 4만 번째 레코드가 색인되었습니다.

Synapse에 4만 번째로 색인된 레코드는 그림에 붉은 테두리로 표시된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대한의학회 발행) 2월호 게재 논문입니다(<http://dx.doi.org/10.3346/jkms.2013.28.2.280>).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KoreaMed 등재 14년 학술지 중 재평가 대상 제외 방침 안내

본 협의회에서는 단체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KoreaMed 등재 후 7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997년~1999년에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 40종이 등재 14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재평가대상이 되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6종을 재평가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향후

등재 14년 재평가를 준비하는 단체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등재 7년재평가에서 평점 3.5 이상을 획득한 학술지
- 2) MEDLINE, SCI, SCOPUS 중에서 1개 이상의 DB에 등재된 학술지
- 3) 단,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Synaps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는 등재 14년 재평가 대상에 포함함.



제30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

2012년 11월 22일(목)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회의실에서 제30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의협협 단체회원인면서 KoreaMed에 미등재된 상태였던 학술지 중 9종이 평가를 받아 총 8종이 평점 3.0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하오니 KoreaMed 등재 및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조현병학회지(평점: 3.00)

대한조현병학회의 공식학술지로 연 2회 발행됩니다. 금년 평가 대상은 2012년 6월호(15권 1호)로서 총설 2편, 원저 4편, 증례보고 1편으로 총 7편이 게재되었습니다.

목차, 편권란, 투고규정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으나 한글제목과 영문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논문들이 있으며, 투고규정에서 중복되는 문장이 있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고규정에 기관윤리규정과 저지원고접점표가 누락되었고, 참고문헌으로 한글논문을 허용하고 있는데 학술지의 특성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향후 DOI 부여 및 Synapse 참여를 통한 학술지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제고가 필요합니다. 논문제목과 저지정보는 완벽하게 처리되었으며, 초록에서도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투고규정이 정한 단어수를 초과한 논문이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에서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참고문헌의 기재방식이 투고규정에 어긋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됩니다. 표와 도형, 그림에서 오차는 발견되지 않으나, 약어해설이 누락되거나 표식의 사용이 투고규정에 어긋나는 논문이 있고, 표에서 내부 정렬이 적절치 않은 논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판단되며, 편집 시 조금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향후 KoreaMed 등재 시 의협협의 권장사항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참고문헌으로 한글논문을 허용하는 부분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신간호학회지(평점: 3.20)

정신간호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연 4회 발간하는 국·영문 혼용 학술지입니다. 평가대상은 21권 3호(2012년 9월호)로 9

편의 원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한글로 '정신간호학회지'가 표기되어 있고 이보다 큰 글씨로 'JKPMHN'이 표기되어 있는데, 국문학술지로 공식명칭이 정신간호학회지이면 국문제호가 우선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기된 홈페이지 주소가 학술지가 아닌 학회 홈페이지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따로 명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문을 공개하므로 e-ISSN을 부여받아 표지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고규정에서 저자명과 책임저자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고 종설, 원저, 증례 등의 논문 종류에 따른 형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본문과 초록에 대소문자의 오류나 괄호 등의 기호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표 안에 불필요한 약어표기가 있으며, 한 column 안에 두 가지 variable을 표기하거나 P값을 표 안에 표기하는 잘못된 표가 있으므로 최종 교정 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기술양식이 APA style로 추후 의학학술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Vancouver style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준비된 학술지로 사소한 오류를 수정하면 충분히 국제적인 학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역사회간호학회지(평점: 3.19)

지역사회간호학회의 공식학술지로 연 4회 발행됩니다. 심사 대상이 된 23권 3호(2012년 9월)에는 11편의 원지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학술지는 원지만을 게재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표지에 논문의 목록을 게재하는 것이 다른 학술지와 차이점이었습니다. 참고문헌 중 국내 학술지 비중이 높으면서 자체 학술지 인용 빈도는 높지 않아서 심사 대상 학술지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투고 심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도 좋았으나 간기를 잘 지키지 못한 점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에서 한글, 영문의 의미가 다른 논문이 발견된 것은 향후 심사과정에서 걸려져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투고 규정에 일부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고 참고문헌 오류가 다소 많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4. International Journal of Stem Cells(평점: 3.11)

Korean Society for Stem Cells Research에서 발행하는 학술

지로서 연 2회 발행되며 편집위원의 구성과 논문투고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평가 대상은 2012년 5월호(5권 1호)로서 종설 4편, 원저 8편, 단신 1편으로 총 13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 도안이 우수하고 목차와 투고규정에서 오지는 발견되지 않으나, 편집위원 명단에서 오자가 발견되며 소속국가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투고규정에서 출판윤리규정, 도량형, 저지원고점검표, 저자 역할에 대한 규정 등이 누락되었으며, 원저 이외의 논문에 대한 작성요령이 없어 종설의 체제가 통일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제목에 약어를 사용한 논문과 오자가 발견되는 논문이 있으며, 저자 소속기관의 기술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록에 오자가 있는 논문이 있고, 초록과 중심단어에 부적절하게 약어를 사용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체제는 투고규정의 미비로 종설의 체제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종설로 보이는 한 논문이 원저로 분류된 오류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표기에 오지는 없으나 투고규정에 정한 문헌수가 초과한 논문이 있으며, 학술지 약어명을 부적절하게 기술한 논문이 있습니다. 표와 그림은 잘 정리되어 있으나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면에서 수준 높은 국제학술지로 판단되나, 투고규정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Journal of Reproductive Endocrinology(평점: 3.63)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되고 평가대상은 4권 2호(2012년 10월호)로 종설 3편과 원저 5편을 실고 있습니다.

표지는 우수하나 명기된 홈페이지 주소가 학술지의 것이 아니라 논문투고시스템의 주소이므로 가능한 한 학술지 자체의 주소를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저자됨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의 정렬오류가 있고 본문에서 대소문자 오류나 조사의 표기 오류 등이 발견되며 오타가 있습니다. 표에서 불필요한 가로줄이 있고 정렬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불필요한 약어표기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점검표에서도 오타가 발견됩니다. 전반적으로 체제가 잘 정비된 학술지로 사소한 오류를 수정하면 수준 높은 학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Korean Journal of Neurotrauma(평점: 3.50)

대한신경손상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학술지로서 연 2회 발행됩니다. 금번 평가대상은 2012년 4월호(8권 1호)로서 종설 1편, 원저 7편, 증례보고 3편으로 총 10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표지도안은 전문적이며 오류가 없습니다. 목차 페이지의 난외표제란에 Journal of Korean Neurotraumatology Society라는 구 명칭이 남아 있으며, 한글논문과 영문논문을 모두 게재하는 학술지인데 목차란에는 영문제목만 수록하고 있어 개

선이 필요합니다. 투고규정에서 참고문헌 작성 예를 부적절하게 안내한 부분이 있으며, 논문종류별 작성요령이 누락되었습니다. 논문제목에 오지는 없으나 한글제목과 영문제목이 불일치하는 논문과 저자명 기술이 부적절한 논문이 있습니다. 초록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으나, 불필요하게 웹주소와 약자를 쓴 논문이 있습니다. 본문의 체제와 참고문헌은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표에서 약어해설을 하지 않은 논문이 있으며,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논문이 있습니다(p.39 사진 내 표식을 식별하기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판단되며,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The Ewha Medical Journal(평점: 3.9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 연 2회 발행됩니다. 심사대상이 된 35권 2호(2012년 9월)에는 종설 1편, 원저 4편, 증례 6편, Images and Solution 1편,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1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학술지는 우선 표지가 디자인, 배색에 있어서 미려하였고 전반적으로 편집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간기 준수도 우수하였고 모든 지면을 컬러 인쇄하여 보기 좋았습니다.

의과대학 학술지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요즘의 상황에서 잘 정비되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학술지로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투고규정은 잘 정비가 되어 있었으나 글자가 다소 작아서 읽기 편한 정도는 아니어서 향후 보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논문에서 실험적 조작을 가했는데 IRB 언급이 없는 논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저자들이 IRB 심사결과를 같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문에 표시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에 맞는 조치로 생각합니다.

8. Toxicological Research(평점: 3.32)

대한독성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연 2회 발행됩니다. 심사대상이 된 28권 3호(2012년 9월)에는 단신(short communication) 1편, perspective minireview 1편, 원저 8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 8개 학술지 중 영문으로만 발간되는 2가지 학술지 중 하나로서 중간색을 바탕으로 창간년도가 배경으로 나타나면서 학술지 제목과 주요 논문의 사진을 배열된 디자인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이미 SCOPUS/EMBase, CA Search 등의 국제적 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로 DOI를 부여하고 있는 등 국제적 인지도와 함께 학술지 정보화에서도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투고규정에 오자가 있는 등 정비할 부분이 발견된 점과 일부 초록에서 문법상 수정할 부분이 보이는 점입니다.

논문 제목의 저자 명단에 우편번호를 기재하는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향후 Synapse 등의 서비스를 적용할 때는 어려움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